

## 도덕적 판단에서 권력의 효과: 접근/억제인가, 향상/예방인가\*

정은경†

백석대학교

권력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권력이 사람들의 접근성향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억제 시스템과 유사하나 목적상태에 따라 조절시스템을 달리 제시한 조절초점 이론을 사용하여 권력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도덕적 판단은 접근-억제 시스템보다는 향상-예방 초점으로 구성된 조절초점과 좀 더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3개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 1, 2에서는 단어찾기피즐 과제와 과거경험쓰기 과제로 권력을 조작하였으며 도덕적 시나리오를 읽은 후 접근-억제 기제와 조절초점, 정서가 평가되었다. 실험 3에서는 조절초점변화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집단이 포함되었다. 실험 1, 2, 3의 결과,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권력의 고저는 접근-억제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조절초점, 특히 예방초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예방초점이 향상초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판단이 예방초점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고권력집단은 저권력집단에 비해 예방초점이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연구 3의 결과는 이러한 변화가 저권력집단의 예방초점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고권력집단의 예방초점이 낮아진 것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도덕적 판단에서 권력의 효과는 조절초점을 통해서 좀 더 잘 설명될 수 있으며, 그 중 예방초점이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권력, 도덕적 판단, 접근-억제, 조절초점, 예방초점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8-023154).

† 교신저자: 정은경, 백석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69, E-mail: etopaz@hanmail.net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근 연구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권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권력이 사고, 정서, 동기, 행동이라는 다양한 인간특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현재 권력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권력의 효과 양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Keltner, Gruenfeld, 그리고 Anderson(2003)은 권력에 대한 접근-억제(Approach-Inhibition)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높은 권력감은 접근성향을 증가시키는 반면 낮은 권력감은 억제성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접근-억제 이론은 이후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덕적 판단에서도 나타나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도덕’이라는 분야가 보상과 자유보다는 주로 처벌과 위협, 의무와 관련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판단에서도 여전히 접근-억제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는 도덕적 판단 영역에서 권력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권력의 대표적인 효과로 알려진 접근-억제 기제가 도덕적 판단 영역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권력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 권력과 접근/억제 성향

권력은 “자원 제공이나 처벌을 통해 타인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상대적 능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Keltner et al., 2003). 이것은 결국은 권력은 통제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Fiske, 1993; Galinsky, Gruenfeld, & Magee, 2003), 통제력을 느끼는 권력자는 낮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더 큰 자유를 느낀다.

Keltner 등(2003)은 접근-억제 이론을 통해 높

은 권력감은 보상과 자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향을 촉진시키는 반면, 낮은 권력감은 위협, 처벌, 사회적 제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억제성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실제로 높은 권력감을 지닌 사람은 낮은 권력감을 지닌 사람에 비해 자극에 좀 더 접근하고(Smith & Bargh, 2008), 협상에서 먼저 반응하며(Magee, Galinsky, & Gruenfeld, 2007),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Galinsky, Gruenfeld, & Magee, 2003)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이 접근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권력감은 성적인 매력을 더 많이 느끼게 하고(Bargh, Raymond, Pryor, & Strack, 1995), 대인 거리에서 타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안서원, 박수애, 김범준, 2013; Dean, Willis, & Hewitt, 1975), 조직의 저성과자에 대해 훈련과 직면과 같은 접근관련 행동을 더 많이 취하도록 한다(Ferguson, Ormiston, & Moon, 2010).

권력에 대한 접근-억제 모델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접근시스템과 억제시스템을 분리해서 모두 측정하기보다는 접근의 반대 측에 억제가 있는 단일 차원적 측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접근-억제 시스템은 단일 차원이기보다는 두 성향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Keltner et al., 2003; Smith & Bargh, 2008).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권력여부에 따른 접근시스템과 억제시스템의 변화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Smith와 Bargh(2008)은 권력이 접근/억제 시스템에 미치는 무의식적 영향을 접근과 억제 시스템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그들은 BIS(Behavioral Inhibition System)와 BAS(Behavioral Approach System) 척도(Carver & White, 1994)와 접근속도와 회피속도를 사용하여 접근과 억제 시스템을 분리하여 측정하였는데, 접근시스템에서만 권력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억제시스템에서는 권력조건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Maner, Kaschak, 그리고 Jones(2010)가 실시한 운동 기능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전 연구와 유사하게 접근행동에서만 권력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권력의 효과가 높은 권력은 접근행동을, 낮은 권력은 억제행동을 촉진한다는 단순한 도식은 적용되지 않으며, 억제성향에 대한 낮은 권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권력과 조절초점

조절초점은 Higgins(1997)가 인간의 접근/억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동기 체계로, 향상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으로 이루어진다. 향상초점은 성장과 양육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며, 이상(ideal)을 추구하며, 보상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 유무에 민감하다. 따라서 향상초점은 성공과 획득과 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 '접근'한다. 반면 예방초점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하며, 의무(ought)를 추구하고, 손실이나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하다. 따라서 예방초점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억제'한다.

조절초점은 Gray(1987)가 제시한 행동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이하 BAS)와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이하 BIS)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Gray 또한 BAS는 잠재적인 보상을 지향하는 행동을 조절하며, BIS는 잠재적인 위협이나 처벌을 피하는 행동을 조절한다고 제안하여 Higgins와 마찬가지로 자기조절의 기제로 접근/억제 행동을 설명하였다. 다만 Gray의 모델에서는 '보상'에 대한 접근과 '비처벌'에 대한 접근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반면, 조절초점 이론에서는 최종적인 목표상태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기제가 작동한다고 본다(Higgins, 1997). 즉 Gray에 의하면 보상과 비처벌은 같은 것으로 간주되나 Higgins에 의하면 보상은 향상초점과 관련된 것이고 비처벌은 예방초점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조절초점 이론에 의하면, 같은 접근행동일지라도 사용되는 전략이나 유발되는 정서 등은 최종 목표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

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접근행동을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하는 이유, 즉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과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BAS/BIS 시스템은 보상과 처벌이라는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접근-억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조절초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접근-억제 행동을 세분화하여 유기체가 같은 접근-억제행동을 할지라도 그 이면의 목표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자기조절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과 조절초점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권력과 조절초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Willis, Rodriguez-Bailon, & Guinote, 2008; Willis & Rodriguez-Bailon, 2010에서 재인용) 이상(ideals)과 의무(ought)라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목표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해 권력과 조절초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높은 권력집단은 '이상'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권력집단에 비해 높았지만 '의무'에 대한 접근성에서는 권력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상기한 접근-억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서 권력감이 접근성향은 높이나 낮은 권력감이 억제성향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했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따라서 권력이 조절초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향상-예방 초점 모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접근-억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에만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 권력, 조절초점, 도덕적 판단

최근에는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권력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권력과 도덕적 판단과의 직접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Lammers과 Stapel(2009)은 권력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다양한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높은 권력감을 지닌 사람들은 규칙기반적 사고를, 낮은 권력감을 지

년 사람들은 결과주의적 사고를 한다고 제시하였다. 기존의 철학과 심리학 연구에서는 도덕적 판단을 분류할 때 크게 규칙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론적(deontological) 혹은 규칙기반적(rule-based) 사고와 해당 옵션의 효율성, 즉 어떤 것이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혹은 결과주의적(outcome-based) 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1명의 사람을 죽이면 1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것은 규칙기반적 사고에 해당하며, 10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결과주의적 사고에 해당한다. 권력감이 규칙기반적 사고를 촉진하는 양상은 기업의 윤리적 시나리오와 정책결정 시나리오를 사용한 국내 연구(정은경, 2013)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권력집단이 규칙기반적 결정을 한다는 상기 연구 결과들은 권력감이 접근 성향을 높인다는 이전 결과들과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권력감이 접근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면 오히려 상황을 변화시켜서 얻는 결과와 긍정적인 보상에 집중하는 결과주의적 판단을 내리기 더 쉽기 때문이다. 규칙기반적 사고는 오히려 위협과 처벌에 민감한 억제 시스템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권력의 효과는 왜 기존의 접근/억제 시스템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도덕적 판단이라는 영역의 독특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Beach, 1990; Pennington & Hastie, 1993), 의사결정의 영역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이 달라지고, 이는 결정의 전략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의사결정 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관여되는 정신적 표상이나 자기조절 시스템은 달라질 수 있다. Schwartz(1992)가 분류한 10가지 인간의 가치와 조절초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Leikas, Lönnqvist, Verkasalo, & Lindeman, 2009)는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이 서로 다른 가치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안전은 예방초점과 관련된 가치임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적 영역은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법과 규범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안전에 대한 영역이므로 예방초점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의사결정 영역과 조절초점의 부합효과(fit)를 살펴본 연구(정은경, 이지은, 손영우, 2010)는 디자인 영역은 항상초점이, 도덕적 영역은 예방초점이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권력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이 ‘관여되는 정신적 표상’이 다른 도덕적 판단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존 권력의 효과에 대한 연구 영역은 대개 대인간 거리,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정서 읽기, 성적인 행동 등과 같이 예방초점적이기보다는 항상초점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영역에 대해서는 단순한 접근/억제 모델보다는 그 목적상태에 따른 분류인 항상/예방 모델로 권력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권력의 효과 중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접근-억제 시스템의 변화가 도덕적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도덕적 판단에서 권력의 효과가 항상-예방 초점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도덕적 판단에서의 권력의 효과가 접근-억제 시스템과 조절초점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권력감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단어점화 과제를 사용하였다. 권력의 효과가 접근-억제 시스템보다는 항상-예방 초점을 포함하는 조절초점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개별 조절초점의 방향성은 선행연구의 불일치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가자

대학생 57명(남자 29명, 여자 28명)이 수업의 선택사항으로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모든 응답에 동일한 반응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반응을 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한 5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8세(SD=2.39)였다.

### 연구 도구

#### 권력조작

권력조작은 Chen, Lee-Chai, 그리고 Bargh(2001)이 사용한 단어찾기퍼즐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5×3의 글자매트릭스를 제시한 후 해당 매트릭스에서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모두 찾아서 적도록 하였다. 고권력집단의 매트릭스에는 권력, 지배, 통제 등과 같이 권력과 관련된 단어가 발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저권력집단의 매트릭스에는 부하, 복종, 의존 등과 같이 낮은 권력감과 관련된 단어가 발견될 수 있도록 충전글자(filler letter)와 함께 구성되었다. 단어를 적은 후에는 일련의 단어를 제시하고 해당 단어가 퍼즐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단어확인과제에도 고권력집단에는 권력관련 단어들(권력, 힘, 권위, 정권, 바위, 지배, 통제, 사자)이, 저권력집단에는 낮은 권력과 관련된 단어들(부하, 나약, 복종, 의존, 노동, 지류, 참새, 순종)이 주로 제시되었다.

#### 도덕적 판단

도덕적 판단 과제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적 판단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Lammers & Stapel, 200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철수는 병원 의사이다. 최근 그는 어떤 젊은 남자를 진료하다가 그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자각증상이 없

고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가 6~9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했고, 현재는 그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치료약이나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여자친구는 우연히 이 사실을 남자친구보다 먼저 듣게 되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당분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김철수 의사에게 애원하였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는 것을 항상 꿈꾸고 있었으며 최근 함께 아프리카를 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예약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죽지만 현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의사선생님이 자신들의 휴가가 끝난 다음에 그에게 알려주면 그가 좀 더 남은 삶을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병원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환자 상태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다.” 참가자는 상기 시나리오를 읽은 후 자신이 의사라면 어떨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 접근-억제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접근-억제 성향과 조절초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은 본래 기질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들이다. 그러나 Smith와 Bargh(2008)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상황적 조작에 따른 변화가 기질성향 측정 도구에도 잘 반영된다고 결론내리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접근-억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Carver와 White(1994)의 BIS/BAS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0문항으로,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접근성향을 측정하는 BAS문항으로는 “나는 종종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봤다면, 나는 그 즉시 움직인다.” 등 13개의 문항이 있으며, 억제성향을 측정하는 BIS 문항으로는 “나는 실수할까봐 걱정한다.”, “뭔가 불쾌한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나는 보통 신경

이 매우 곤두선다.” 등 7개의 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접근성향은 .760, 억제성향은 .864였다.

**조절초점(향상/예방)**

향상-예방 초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egulatory Focus Scale(RFS; Fellner, Holler, Kirchler, & Schabmann, 2007)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개 문항(향상초점 5개, 예방초점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가된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향상초점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 있으며, 예방초점 문항으로는 “내게 있어서 나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항상 일을 가능하면 정확하고 오류 없이 하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향상초점은 .482, 예방초점은 .768이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고권력집단과 저권력집단에 배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읽은 후 권력조작을 위한 단어찾기 퍼즐과 단어확인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도덕적 판단 시나리오를 읽었으며, BIS/BAS 척도와 RFS에 응답하였다. BIS/BAS 척도와 RFS는 의사무선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답하였으며 사후설명서를 읽은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결과 및 논의**

집단에 따른 종속변인들의 기술통계치값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권력고저에 따라 조절초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절초점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F(1, 60) = 40.28, p < .001$ , 모든 집단에서 예방초점이 향상초점보다 높았다. 아울러 조절초점과 권력조건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관찰되었는데,  $F(1, 53) = 5.15, p < .05$ , 향상초점은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예방초점은 비권력집단이 권력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5) = -2.16, p < .05$ .

접근/억제 성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억제성향이 접근성향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p = .18$ ), 그 밖에도 유의미한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1의 결과는 먼저 사람들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에는 향상초점보다는 예방초점이 훨씬 활성화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권력감이 접근성향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도덕적 판단과제를 거친 후에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접근-억제 시스템보다는 조절초점, 특히 예방초점이 권력의 효과를 좀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예방초점이 더 낮았는데, 예방초점이 규칙과 의무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본다면, 본 실험결과는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이 도덕적 판단과제를 접했을 때, 규칙과 의무에 대한 민감도가 권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권력조건에 따른 종속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1)

	접근		억제		향상		예방	
	M	SD	M	SD	M	SD	M	SD
고권력집단	2.95	0.30	3.04	0.45	4.29	0.67	5.12	0.93
저권력집단	3.04	0.39	3.20	0.65	4.03	0.94	5.61	0.74

## 연구 2

연구 2는 권력조작방식과 도덕적 판단과제를 달리하여 연구 1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 정서를 측정하여 정서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권력이 접근/억제성향에 미치는 효과에 정서가 관련된 것은 아님을 제시하고 있으나(Smith & Bargh, 2008), 본 연구는 이를 다시 확인하여 연구결과를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가자

대학생 62명(남자 20명, 여자 42명)이 실험참가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받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3.8세(SD=4.89)였다.

### 연구 절차 및 연구 도구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고권력집단과 저권력집단에 배정되었다. 연구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마친 후 권력조작이 실시되었다. 권력조작은 Galinsky, Gruenfeld, 그리고 Magee(2003)이 사용한 쓰기과제를 이용하였다. 고권력집단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제했던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면 기술해주세요.”라는 지시문을, 저권력집단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신을 통제했던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면 기술해주세요.”라는 지시문을 받았다. 두 집단 모두에게는 A4용지 한 장이 제공되었으며, 가능하면 그 상황을 자세히 기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권력조작을 위한 쓰기과제를 마친 후에는 참

가자들은 도덕적 판단과제를 읽었다. 도덕 시나리오는 독일에서 2002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각색하여 사용하였으며 (Lammers & Stapel, 200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세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후 경찰은 몸값을 찾으러 온 용의자를 체포하였으며, 용의자는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용의자는 그 아이가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용의자가 계속 장소를 말하지 않고 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담당 수사관 김철수는 아이를 빨리 찾지 않으면 물과 음식이 없는 갇힌 상태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초조해졌다. 김철수 형사는 고문을 하면 용의자가 자백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나 수사규정에 의하면 용의자 고문은 금지되어 있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자신이 담당 형사라면 어떨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연구 1과 동일하게 BIS/BAS 척도(접근  $a = .793$ , 억제  $a = .817$ )와 RFS(향상  $a = .704$ , 예방  $a = .392$ )가 의사 무선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정서가 PANAS(Watson, Clark, & Tellegen, 1988)로 측정되었다. PANAS는 긍정정서 10개, 부정정서 10개 총 20개의 정서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서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긍정정서는 .722, 부정정서는 .882이었다. 이후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답하였으며 실험에 대한 사후설명을 듣고 보상을 수령한 후 해산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집단에 따른 종속변인들의 기술통계치값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정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F(1, 60) = 30.11$ ,  $p < .001$ , 권력조건간 정서차이는 나타나지 않

표 2. 권력유무에 따른 종속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2)

	접근		억제		향상		예방		긍정정서		부정정서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고권력집단	2.88	0.39	3.09	0.58	4.33	1.17	5.00	0.74	2.97	0.51	2.40	0.81
저권력집단	2.84	0.27	3.14	0.46	3.98	1.00	5.40	0.70	2.98	0.63	2.18	0.79

았다. 이에, 이후 분석에서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절초점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조절초점의 주효과와,  $F(1, 60) = 33.98, p < .001$ , 조절초점과 권력조건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다,  $F(1, 60) = 5.65, p < .05$ . 역시 향상 초점은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예방 초점은 저권력집단이 고권력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0) = -2.13, p < .05$ . 접근/억제 성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접근/억제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였는데,  $F(1, 60) = 9.94, p < .01$ , 모든 집단에서 억제성향이 접근성향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권력의 효과에 있어서 정서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는 연구 1과 거의 동일하였다. 전반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사람들은 예방초점이 향상초점에 비해 훨씬 활성화되었으며,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권력의 효과는 예방초점에서만 관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로는 도덕적 이슈를 접했을 때 고권력집단의 예방초점이 낮아지는 것인지, 저권력집단의 예방초점이 높아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판단시 활성화되는 예방초점의 기저선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 3이 실시되었다.

### 연구 3

연구 3은 연구 1, 2에서 발견된 결과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상기 연구

들에서는 도덕적 판단에서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예방초점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고권력집단의 예방초점이 낮아져서인지, 아니면 저권력집단의 예방초점이 높아져서인지, 혹은 두 집단이 모두 변화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사용하여 연구 1, 2의 결과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 방법

### 연구 참가자

대학생 86명(남자 38명, 여자 48명)이 수업의 선택사항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권력조작 문항을 제대로 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8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4세(SD=2.13)였다.

### 연구 절차 및 연구 도구

모든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 2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다만 통제집단과 정서척도가 추가되었다. 통제집단에도 단어찾기퍼즐이 실시되었다. 통제집단의 퍼즐에는 노래, 조리, 동봉 등 권력과 관련이 없는 일련의 단어들이 포함되었으며, 단어확인과제에서도 중립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사람, 노래, 조리, 동봉, 세상, 옷장, 동물, 기록). 권력조작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기존 연구(Baron, 1992)에서 사용된 도덕적 판단 과제를 변형한 시나리오를 읽었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철수는 터키를 여행하던 중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를 당해 그들의 은닉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여행객들이 많이 잡혀와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곧 포로들 중 10명을 살해할 계획입니다. 누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이 김철수에게 포로들 중 1명만 죽이면 원래 죽이려고 했던 10명은 살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김철수와 테러리스트들 외에는 아무도 김철수의 결정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실제로 지켜진다는 근거가 있으며 김철수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역시 참가자들은 자신이 김철수라면 어떻게 대해 잠시 생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의 절차는 연구 2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BAS 척도의  $a = .789$ , BIS의  $a = .725$ , RFS의 향상초점  $a = .595$ , 예방초점  $a = .570$ , PANAS의 긍정정서  $a = .816$ , 부정정서  $a = .893$ ).

### 결과 및 논의

집단에 따른 종속변인들의 기술통계치값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정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시 모든 집단에서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F(1, 82) = 49.75, p < .001$ , 권력조건간 정서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이후 분석에서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절초점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조절초점의 주효과와,  $F(1, 82) = 10.29, p < .001$ , 조절초점과 권력조건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다,  $F(1, 82) = 3.49, p < .05$ . 집단간 차이는 예방초점에서만 나타났는데, 고권력집단은 저권력집단과,  $t(54) = -2.83, p < .01$ . 통제집단,  $t(54) = -2.15, p < .05$  모두 보다 예방초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저권력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간 조절초점

표 3. 권력유무에 따른 종속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연구 3)

	접근		억제		향상		예방		긍정정서		부정정서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고권력집단	2.95	0.40	2.99	0.51	4.33	1.03	5.07	0.79	2.03	0.54	1.19	0.72
저권력집단	3.08	0.34	3.03	0.43	4.13	0.73	5.60	0.59	2.15	0.63	1.32	0.80
통제집단	2.98	0.36	3.05	0.39	4.24	0.64	5.48	0.67	2.07	0.58	1.39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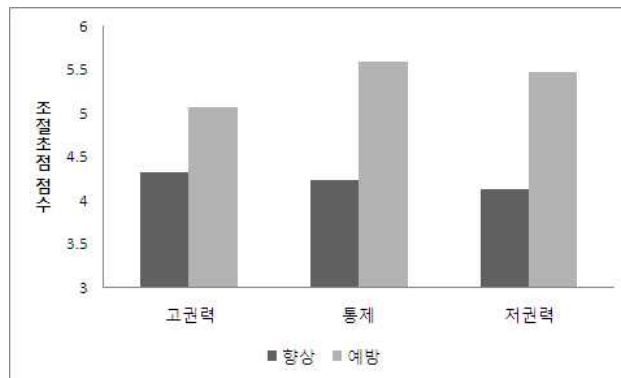


그림 1. 집단간 조절초점 점수의 차이

의 차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접근/억제 성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3은 연구 1, 2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종속변인의 기저선을 측정하여 집단간 차이의 방향성을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역시 예방초점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제집단과 저권력집단이 고권력집단에 비해 예방초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낮은 권력감이 예방초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권력감이 예방초점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종합 논의

본 연구는 권력의 대표적인 효과인 접근-억제 시스템의 변화가 도덕적 판단 영역에서도 나타나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접근-억제 시스템에서는 권력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높은 권력감이 접근시스템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도덕적 판단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억제 시스템보다는 조절초점, 즉 향상-예방 초점에서 권력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향상초점에서는 권력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예방초점에서는 높은 권력집단이 낮은 권력집단에 비해 예방초점이 낮았다. 특히 연구3의 결과는 낮은 권력감이 예방초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권력감이 예방초점을 낮추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권력 효과의 비대칭성이 본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 권력감은 접근시스템을 활성화시키지만 억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예방초점만이 권력의 영향을 받는 비대칭성을 보였다. 예방초점만이 변화한 것은 앞서 말한 도덕적 판단 영역이 예방초점과 관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개 실험 모두에서 모든 집단에서

예방초점이 향상초점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연구 3에서는 통제집단과 낮은 권력집단간의 예방초점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도덕적 판단 이슈가 사람들의 향상초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도덕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예방초점만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추후 도덕적 판단 영역과 다른 향상초점 관련 영역을 모두 포함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검증될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점은 높은 권력감을 지닌 사람들이 낮은 권력감을 지닌 사람들보다 예방초점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기존의 권력에 대한 접근-억제 모델(Keltner et al., 2003)에 의하면 예측가능한 것이다. 즉 높은 권력감의 사람들은 위협이나 처벌에 대한 민감성이 낮기 때문에 도덕적 이슈가 포함하고 있는 규범위반에서 오는 처벌이나 위협감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높은 권력감을 지닌 사람이 규칙기반적 사고를 한다는 연구결과(정은경, 2013; Lammers & Stapel, 2009)와는 여전히 맞지 않는 결과이다. 즉 규칙기반적 사고는 높은 예방초점과 관련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권력자는 예방초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론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여전히 설명되지 못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혹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규칙기반적' 판단이라는 이름이 잘못 명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도덕적 판단 영역에서 사용하는 도덕적 딜레마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도덕적 딜레마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에도 '고문하는 것은 나쁘다'는 가치와 '아이의 생명은 반드시 구해야한다'라는 가치가 충돌한다. 이 때 기존 연구들은 이미 설정된 기존의 가치(여기서는 고문금지)를 지키는 것을 규칙기반적 사고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고문금지 뿐 아니라 생명구조 또한 중요한 도덕적 규칙 및 규범

에 해당한다. 따라서 규칙기반적 판단이라는 명명이 고권력자와 저권력자의 판단을 정확하게 표현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생명구조라는 가치를 더 지켜야할 규칙과 규범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의사결정을 포함한 추구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가설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연구에 사용된 도덕적 시나리오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도덕규범에 대한 시나리오만이 사용되었으며 기업의 윤리적 판단이나 정책 판단과 같은 특정 전문영역에서의 윤리적 판단 시나리오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에 대한 권력의 효과는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도덕적 판단에서 자기관련성(self-relevance)이 개입되면 권력의 효과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는데(Lammers & Stapel, 2009),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권력조작의 효과를 설문지로 측정하였는데, 설문지라는 도구의 특성상 참가자의 의식수준의 반응만을 측정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암묵적인 방식으로 권력의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개의 권력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상사와 부하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조작을 통해서 생태학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도 추후 연구의 고려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권력의 효과인 접근-억제 시스템의 변화가 도덕적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도덕적 판단에서는 조절초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함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안서원, 박수애, 김범준 (2013). 돈과 권력이 대인간 거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 47-58.
- 정은경, 이지은, 손영우 (2010). 조절부합이 디자인과 도덕적 상황 평가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13, 669-676.
- 정은경 (2013). 누가 결과주의적 결정을 내리는가? 권력이 윤리적/정책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 489-506.
- Bargh, J. A., Raymond, P., Pryor, J. B., & Strack, F. (1995). Attractiveness and its consequences for sexual harassment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200-212.
- Baron, J. (1992). The effect of normative beliefs on anticipated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20-330.
- Beach, L. R. (1990). *Image theory: Decision making i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contexts*. Chichester: Wiley.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hen, S., Lee-Chai, A. Y. & Bargh, J. A. (2001). Relationship orientation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pow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173-187.
- Dean, L. M., Willis, F N., & Hewitt, J. (1975). Initial interaction distance among individuals equal and unequal in military ran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4-299.
- Fellner, B., Holler, M., Kirchler, E., & Schabmann, A. (2007). Regulatory Focus Scale (RFS): Development of a scale to record dispositional regulatory focu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6,

- 109-116.
- Ferguson, A., Ormiston, M. E., & Moon, H. (2010). From approach to inhibition: The influence of power on responses to poor-perform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 305-320.
- Fiske, S. T.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 621-628.
- Galinsky, A. D., Gruenfeld, D. H., & Magee, J. C. (2003). Power an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453-466.
- Galinsky, A. D., Gruenfeld, D. H., & Magee, J. C. (2003). Power an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453-466.
- Gray J. A. (1990).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4*, 269 - 288.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Keltner, D., Gruenfeld, D. H., & Anderson, C. (2003). Power, approach, and inhibition. *Psychological Review, 110*, 265-284.
- Lammers, J., & Stapel, D. A. (2009). How power influences mor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279-289.
- Leikas, S., Lönnqvist, J-E., Verkasalo, M. & Lindeman, M. (2009). Regulatory focus systems and personal valu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 415-429.
- Magee, J. C., Galinsky, A. D., & Gruenfeld, D. H. (2007). Power, propensity to negotiate, and moving first in competitive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3*, 200-212.
- Maner, J. K., Kaschak, M. P., & Jones, J. L. (2010). Social power and the advent of action. *Social Cognition, 28*, 122-132.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A theory of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In G. Klein, J. Orasanu, R. Calderwood, & C. E. Zsombok (Eds.), *Decision making in action: Models and methods*(pp. 188-204). Norwood, NJ: Ablex.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 Smith, P. K., & Bargh, J. A. (2008). Nonconscious effects of power on basic approach and avoidance tendencies. *Social Cognition, 26*, 1-2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llis, G., Guinote, A., & Rodriguez- Bailon, R. (2010). Illegitimacy improves goal pursuit in powerless individu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416-419.

1 차원고접수 : 2014. 01. 10.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4.

최종게재결정 : 2014. 02. 19.

## When Power Meets Moral Issues: Approach-Inhibition? or Promotion-Prevention?

Eun Kyoung Chung

Baekseok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on power revealed power is associated with the approach system. This paper tri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power and regulatory focus, which seems similar motivational system with BAS/BIS(behavioral activation system/behavioral inhibition system). However, regulatory focus has been regarded as a different motivational system from BAS/BIS, in that regulatory focus can explain the goal state of an action or inaction.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Study 1 and 2, after manipulating power, participants read a moral dilemma and BAS/BIS and regulatory focus were measured subsequently. In Study 3, control group was included to clarify the changes of regulatory focus after power manipulation. Results showed power manipulation did not affect participants' BAS/BIS scores after reading a moral scenario. Instead, it changed participants' regulatory focus, in specific, prevention focus. Prevention focus was more decreased in high-power condition than in both low-power and control conditions. In addition, prevention scores were strongly higher than promotion scores in all the participan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ower, moral judgment, approach-inhibition, regulatory focus, prevention focus